일반논문

최은경 | 러시아혁명과 일제강점기 조선 모성 보호의 전개

이태숙 | 김유정 소설의 근대성과 여성의 신체

권창규 | 가부장 권력과 화폐 권력의 결탁과 경합
: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박지영 |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채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1945-1979)

이선옥 |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
- 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이은영 | 박서원 시에 나타나는 부정의 멜랑콜리와 그로테스크의 양상

러시아혁명과 일제강점기 조선 모성 보호의 전개

최은경*

차례

1. 들어가며
2. 러시아혁명과 모성 보호의 도입
3. 식민지 조선의 모성 보호 요구 및 전개
  3.1. 여성노동자들의 모성 보호 제도 실시 요구
  3.2. 모성을 보호하고 계몽할 것: 선교 기구의 모성 보호 운동
4. 모성 보호 담론 변모의 두 가지 사례 - 서구 모성 보호 담론의 소개와 직업 여성 건강 담론
  4.1. 모성 보호와 여성 노동을 둘러싼 논쟁–서구 담론의 수입
  4.2. 직업 여성의 건강 담론–개인적으로 감수해야 할 건강과 직업 위해
5. 나가며

<국문초록>

각종 성 혁명 제도 이외에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 여성사에 족적을 남긴 부분 중 하나로 모성 보호가 있다. 혁명 러시아에서 수립된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는 모성 보호의 사회주의적 비전과 함께 국내에 소개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중요하게 촉구하는 과제가 되었다. 본 논고는 러시아 혁명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에 도입된 모성 보호 요구 및 담론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러시아에서 제시한 모성 보호의 사회주의적 비전은 노동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의 모성 보호였고 이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여성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의 모성 보호 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연구교수

구가 러시아 정부와 서구 사회주의적 비전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연합소아건강구제회”에서 보듯이 고정적인 성역할,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원, 모성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기독교적 모성 보호 운동 또한 중요한 모성 보호의 흐름이었으며, 대표적으로 소개된 모성 보호 논자였던 엘렌 케이의 사회적 모성 논의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모성의 역할 자각, 여성의 역할 자각과 계몽, 국가에 대한 요구로 단순화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모성 보호 논의가 추상적인 여성 해방의 다양한 논의들 속에 변주되면서 피상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1930년대 이후 다양한 직업 여성 건강 담론 속에서는 모성 보호 및 여성의 권리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모성 보호에 대한 당대 조선 사회 (여성) 담론의 한계를 드러낸다.

핵심어 : 모성 보호, 러시아 혁명, 여성 사회주의자, 직업 여성 건강, 엘렌 케이, 기독교적 모성 보호 운동

1. 들어가며

러시아혁명은 인류사에 있어 진보의 중요한 축적, 발화였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러시아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동쪽으로의 연장선’이었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일거에 날려 버린 대사건이었다.[1] 세계 최초로 ‘노동자계급 정부의 국가’가 출현했으며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제군주정과 신분 사회는 일거에 일소되었다. 혁명 후 소련은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제3세계의 해방을 약속한 국가로서 피식민 인민들의 희망이 되었다. 토지 국유화, 생산수단 국유화, 모던화 등 볼쉐비키가 내린 일련의 조치는 낡은 제정 러시아의 이미지를 분쇄시켰고 소련은 젊

1) Karl Polanyi, *For a New West: Essays, 1919-1958*, John Wiley & Sons, Cambridge: Polity, 2014, p.29.

은 산업 국가의 심장으로 각인되었다. 러시아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흔들린 노동자 국제주의가 재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정당제가 자리잡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강화되어 잇따라 정권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사에서도 러시아혁명이 미친 영향은 크다.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독일 사회민주당의 아우구스트 바벨(August Bebel),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 그리고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Kollontai) 등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주요한 주창자였고 가족과 경제에서의 여성의 평등을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도입된 각종 성 혁명 제도-낙태와 이혼의 자유화, 동성애 비범죄화, 동거의 허용 등은 가족 제도 상의 억압을 뒤집는 거대한 물결처럼 다가왔다.

성 혁명 이외에도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 여성사에 족적을 남긴 부분 중 하나로 모성 보호를 들 수 있다. 서구에서 모성 보호의 보수적 또는 부르주아적 비전은 사회적 자선을 통한 어머니와 아동의 구원,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강조였다면 급진적 또는 사회주의적 비전은 계급 여성의 권리와 해방, 노동에의 동등한 참여, 모든 양육 여성에 대한 복지였다.[2)3)]

---

2)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서구의 모성 보호 요구는 여성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에 모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는 양상이었다. 즉, 모성보호주의자들은 여성의 개인적 책임을 공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모성보호주의자들(maternalist)들의 운동사는 모성으로 여성의 역할을 국한 짓기 쉽다는 점에서 역사가들의 서술과 서구 페미니즘 역사에서 잊혀졌다는 평가가 있다. Seth Koven and Sonya Michel, “Introdution”, Seth Koven and Sonya Michel eds., *Mothers of a New World: Maternalist Politics and the Origins of Welfare States*, Routledge, 2013, p.2. 그러나 그간의 역사에서 잊혔던 모성 보호 운동에 대해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20세기 초 핵가족 중심의 각종 국가복지제도를 확충할 때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운동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있다. 물론 모성보호주의의 흐름을 여성의 역할 확대 및 인정의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모성보호주의자들의 요구는 때로는 가톨릭 종교, 보수주의자들, 국가주의자들의 요구와 합쳐지기도 하였으며 굴곡을 겪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 저하에 직면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출산 촉진주의(pro-natalism)에 입각한 정책을 앞 다투어 도

모성 보호의 보수적 비전과 사회주의적 비전 모두 식민지 조선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급진적 또는 사회주의적 비전이 확산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 각종 모성 보호 제도가 소개된 이후라 할 수 있다. 모성 보호는 때로는 여성의 직업 참여를 둘러싼 논쟁과 모성을 옹호하는 급진적 또는 사회주의적 비전이 혼합된 채 소개되었으며 여성 해방을 둘러싼 여러 논의 속에 단편적으로 삽입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모성 운동의 계보 속의 여성 운동 역사를 사유하고자 할 때 모성 보호 논의를 별도로 사고하기는 어렵다. 국내에 일제 식민지 시기 모성 담론에 관한 연구는 김혜경, 안태윤 등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며 직업 여성 담론에 관한 연구로 강이수의 논문[4]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성 담론에 대한 연구는 '모성 보호'라는 국제 흐름과 조선 사회 속의 수용이라는 맥락 속

입하였는데 이들 정책은 모성 보호에 크게 진전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식민지 인구 증가로부터 느낀 위협에 대응하는 우생학적 접근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Pat Thane and Gisela Bock,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 - 1950s*. London: Routledge, 2016, pp.28-30 참조.

3) 물론 20세기 초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모성 보호에 관한 시각을 일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부르주아 여성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였고, 여성의 이해가 계급적 이해와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고 여성 운동이 전체 인민 운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성의 별도 보호를 옹호하지 않았다. 클라라 제트킨은 당시 가장 급진적인 시각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모성 보호까지 주장했던 독일의 여성 단체 'Bund fur Mutterschutz (League for the Protection of Motherhood)과 그 단체 지도자이자 여성의 이해를 별도로 주장한 사회민주주의자 릴리 브라운(Lily Braun)과 논쟁을 벌였다. Seth Koven and Sonya Michel, "Womanly duties: Maternalist politics and the origins of welfare states in France, Germany,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1880-1920",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990, pp.1076-1108, 각주 61 참조.

4) 김혜경, 「식민지 시기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어린이, 모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58, 한국사회사학회, 2000, 71-105쪽; 안태윤,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3, 한국여성학회, 2003, 75-116쪽; 강이수, 「근대 여성의 일과 직업관-일제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170-206쪽.

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고는 러시아 혁명이 일제강점기 조선에 미친 다양한 영향 중 모성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혁명 러시아에서 수립된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는 모성 보호의 사회주의적 비전과 함께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모성 보호 제도와 시설이 함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핍된 대상으로, 중요하게 촉구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신 담론으로 수입된 모성 보호 담론은 여성의 신성한 의무에 관한 담론이나 여성에게 계몽해야 할 지식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본 논고는 러시아 혁명 이후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모성 보호 요구 및 담론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2. 러시아혁명과 모성 보호의 도입

1917년 혁명 후 건설된 러시아 공화국의 모습은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러시아 혁명은 피식민지인들에게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영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선에서는 3.1 독립운동과 그 후 사회주의 운동의 부흥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러시아 혁명에 포함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여성 해방 등의 '피압박 민중들을 위한 해방 구호' 등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 가장 새롭고 신선하게 조선 땅에 다가온 구호 중 하나가 여성 해방, 또 모성 보호의 구호였다.

1866년 9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 인터네셔널대회에서 정식화된 8시간 노동휴일요구와 더불어 부인과 아동의 노동 제한, 유해노동 완전 금지 요구가 승인되면서 국제 노동자계급 요구가 되었다. 1893년 3회 대회에서는 여성노동자 결의문으로 (1) 여성에게 8시간 법정 최고노동시간, 18세 이하 소녀에게는 7시간 법정 최고 노동시간 제정 (2) 매주 36시간 연속휴일 설정 (3) 야간노동 금지 (4) 전반적인 건강에 해로운 노동에 여성 고

용 금지 (5) 분만 전 2주간, 분만 후 4주간 노동 금지 (6) 여성이 주로 노동하는 산업부문에 있어서 여성공장감독관 임명 (7) 공장, 작업장, 점포, 가내공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같은 방책을 적용할 것 등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인터네셔널대회에서 여성노동자 권리가 명문화됨으로써 모성 보호가 여성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확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모성 보호 제도를 빠르게 확립하였다. 가족 수당 등 복지 제도를 확충하였고 유급 임신 휴가 등 모성 보호 제도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5]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최초로 모성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6주간의 유급 임신 휴가를 국제적으로 명문화하였다.[6] 여기에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컸다. 1917년 볼셰비키가 집권하면서 공중보건인민위원회(Commissariat of Public Health)와 별도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기구(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Mother and Child)를 설립하였고 특별히 여성과 영아에 관한 사안을 다루었다.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기구는 1) 여성과 아동의 의료 담당 부서 2) 여성과 아동의 사회권 담당 부서 3) 여성과 아동의 사법 담당 부서를 나뉘었으며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과 계몽 지식 보급, 그리고 사법적 사안을 망라하였다. 산아제한과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계몽 등 사회적 서비스가 결합되어 제공되었으며, 출산 후에는 여성들에게 산후 조리 서비스 및 무료 우유가 공급되었다.[7] 혁명 전에는 러시아 여성 98%가 출산 시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혁명 후에는 조산원이나 병원에서 주로 출산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도시 여성은 100% 가까이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8]

---

5) Bonnie G. Smith. *The Oxford Encyclopedia of Women in Worl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348.

6)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1919,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48)

7) Alice Withrow Field,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Soviet Russia,* London: Gollancz, 1932, Chapter 2.

여성 노동에 관해서는 여성 노동자 및 일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노동법에 삽입하였다. 레닌그라드의 노동 위생국은 공장 노동의 건강 위해를 연구하였고 18세 이하의 여성들은 야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다. 임신한 여성들은 출산 전 28일 출산 후 42일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9] 그 뿐 아니라 임신 및 출산 시기의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중앙 과학 기구"를 공중보건성 관리 하에 설치하였으며, 여성과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질병에 관해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10]

이렇듯 혁명 후 소련 정부가 모성 보호를 제도화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노동 여성의 중요한 과제를 주요하게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구현하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되었다. 조선의 신문과 잡지에서도 소련 정부의 모성 보호는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러시아) 나라에서는 부인로동자는 산전산후 합하야 열두주일 내지 열여섯주일 동안 휴양하게 하여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임금도 출근하는 때와 조금도 달음업시 지출하며 또 출생한 아해에 소용되는 물품을 사기 위하야 보조를 밧게 됨"다는 제도적 내용과 함께 소개되었다.[11] 덧붙여 "쏘베트 련방의 여러가지 사업 중에 모성 보호 사업은 가장 발달된 것의 하나임니다(..)쏘베트 련방의 모성보험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쏘베트 안의 다른 모든 보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등의 평가가 뒤따랐다.[12] 소련 정부의 모성 보호 제도는 국내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지향해야 할 일종의 모델이 되었다.

러시아 혁명만이 여성 해방 담론을 촉발시킨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차 세계대전은 광범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가져왔고, 전 세계적

8) Henry E Sigerist and Julia Older, *Medicine and Health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Citadel Press, 1947, p.218.
9) *ibid.* p.196.
10) *ibid.* pp.202-233.
11) 「露西亞와 딴나라 母性保護 의 實跡 (二)」, 『동아일보』, 1927.11.9.
12) 「산모에게는 넉달동안휴양」, 『동아일보』, 1927.11.7.

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 담론에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여성의 권리 신장 주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일본의 주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야마카와 기쿠에 (山川菊榮)의 다음 논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주대전은 부인해방에 현저한 날극을 주엇슴니다 대전시에 남자를 대신하야 국내의 산업을 유지하든 서양부인은 전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세력을 증대한 것이 그 원인의 하나이며 제국주의의 질곡을 탈출한 노농 러시아가 국내의 소수민족의 독립을 승인하는 동시에 시민으로 남녀의 권리평등을 인정한 것이 또한 원인의 하나이엿슴니다.(…)"[13]

러시아 혁명의 모성 보호 제도 수립과 일본의 모성 보호법 제정 운동은 조선의 모성 보호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이들이 모성 보호 요구를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을 위한 요구로, 또는 관련 시설의 수립에 대한 요구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무산자 운동의 성과이자 여성 해방을 위한 단계로서 모성 보호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려 있는 모성에 대한 이해는 일관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모성 보호제도는 이후 국내에서 굴절된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이 눈에 띈다. 1930년대가 되어서는 나치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모성 보호와 유사한 제도로, 출산의 의무를 신성시하며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와 함께 소개되었다.[14] 즉, 여성 해방을 위한 권리라기보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로 종종 굴절,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왜곡은 여성의 전쟁 참여가 독려되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부터 더 심화되었다.

3. 식민지 조선의 모성 보호 요구 및 전개

3.1.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 제도 실시 요구

13) 「東洋婦人의 解放」, 『동아일보』, 1925.1.3.
14) 「남들은엄마를 이러케보호한다」, 『동아일보』, 1935.1.22.

러시아혁명과 국제사회주의운동은 식민지 조선에도 모성 보호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다.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제도 실시 요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일제강점기 각종 통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비율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 중 본업 유무에 따른 유업자 비율은 남/녀 각각 59.9%, 32.3%로 약 30% 가까운 여성들이 이미 직업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업으로 보면 대다수가 농업(총 유업인구 중 76.74%)이었다. 여성 직업종사자 대다수가 농업 종사자였다는 점은 여성 운동에 있어 농업 여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이에 관한 논의는 그리 많지 못했다.[15]

한편 도시 지역은 경성부의 경우 직업을 가진 여성 비율이 줄어들어 총 유업 인구 중 12.7%이었으며 대다수의 직업 종사자들은 가사사용인(5.38%), 접객업 종사자(3.06%)였다. 즉 가내에서 삯바느질, 침모 등으로 타인의 옷을 만들어주는 여성들이 많았고 모성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업노동자들은 경성부의 경우 2.25%에 불과하였다. 한편 다른 도시 지역의 경우 공장노동자들의 비율은 좀더 증가하였는데, 대구부 여성 공업종사자는 8.51%, 평양부 여성 공업종사자는 5.31%, 함흥부 여성 공업종사자는 6.05%에 달하였다.[16]

도시 지역 직업 종사 여성의 증가 현상을 두고 주로 경제적 독립의 관점에서 여성의 직업 구함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논의가 많았다. 부인이 직업을 구하는 것은 "근대부인의 개인으로서의 자각, 인생으로서의 각성"

15) 일부 필자가 "농촌의 여성은 농촌의 모성이외다. 농촌은 조선의 농촌이외다. 따라 농촌의 모성은 조선의 모성이외다. 전민족의 엄이외다" 등 농촌 여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남성 성욕의 대상이 되는 문제, 조혼의 문제, 허약한 육체로부터 기형, 저뇌아 등의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이성환, 「긴급동의합니다-농촌여성문제에 대하야」, 『신여성』, 제3권 제1호.)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교육과 계몽, 구습 타파의 관점에서 농촌 여성을 다루는 것이었고 직업 여성이라는 특징 속에서 농촌 여성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16) 朝鮮總督府, 『民籍國籍及職業(小分類)別本業人口』, 京城: 朝鮮總督府, 1935.

이라는 것이었다.[17]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업 여성의 건강, 모성 보호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각처 공장에는 과격한 노동, 장시간의 노동, 설비의 비위생적, 의식의 험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여자들이 모성의 자격을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한평생 임신하지 못하도록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직업은 모성에 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여자에게 공장직공이 되지 말라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아니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모성으로 위하여 사회적으로 할 일은 노동조건의 개선, 공장설비의 철저한 혁신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직업부인의 건강을 보장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줄 압니다."[18]

국내 사회주의 운동 계열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자유, 가정 노동의 사회화와 함께 모성 보호 주장을 단체 결성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모성 보호 개념을 도입하여 1923년 공장법을 개정하여 산전 4주간, 산후 6주간 휴업을 최초로 정한 것에 고무되었다. 박원희 등이 주도하여 1926년 결성된 경성여자청년회는 설립 강령에 "아등은 부인의 독립과 자유를 확보하며 모성 보호와 사회상을 재한남녀디위의 평등인사회제도의 실현을 긔함."을 삽입하여 강하게 제창하였다. 박원희는 경성여자청년회 설립 취지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부인을 육아와 생산의 유일한 기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모성 보호에 관한 하등의 시설이 없이 생산의 전후까지 가혹한 로동을 함니다"라고 진단하며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사회주의 경제조직으로 고쳐서 우리도 경제적 자유가 있을 것이며 또한 가정 노동을 사회화시켜서 직업에 자유가 있으며 특별히 모성 보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19] 근우회에서도 부인노동의 임금차별 철폐와 산전산후의 임금지불을 요구하고 1928년 전국대회 토의안에서는 분만 전후 8주의 휴업, 그 기간 중 임금 지불, 수유

17) 「婦人問題의 槪觀(12)」, 『동아일보』, 1922.6.26.
18) 유곡생, 「직업과 모성」, 『동아일보』, 1927.12.24.
19) 「우리회의취지」, 『동아일보』, 1926.1.8.

중 모친을 위한 시설 마련,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에 대한 해고 반대 등을 내세워 강령안을 통과시켰다.[20]

이러한 모성 보호 요구는 실제 노동자 쟁의에서 요구사항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1930년 8월 7일부터 평양의 10개 고무공장의 1,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인하에 반대하여 파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요구안 20개조에서 산전산후 3주간 휴양급 및 생활비 지급, 수유시간의 자유 등이 포함되었다.[21] 1930년 쟁의가 실패한 이후에도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산발적인 투쟁을 이어나갔는데,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도 검거되어 당국을 놀라게 하였다.[22] 평양 고무공장의 파업은 임신한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도 함께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성 보호 요구가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까. 저숙련 노동, 단기간의 노동 인구 고용 및 방임, 단체 기숙사 생활 등의 일제강점기 여성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고려했을 때 17세 이전의 어린 여성들이 대다수 공장 노동에 고용되었으며 상당수는 결혼 후까지 공장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혼여성이 취업한 대표적인 직종은 방직 공업이었다. 방직 공업은 전체 여성 공업노동자의 2/3 이상이 집중될 정도로 여성노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나 경성부 방직공업종사 여성의 61%, 대구부 방직공업종사 여성의 86%가 미혼일 정도로 기혼 여성의 취업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다른 직종-화학제품 제조업, 피복, 신장품 제조업 등은 평양부의 경우 70%(화학제품제조업), 57%(피복, 신장품 제조업)가 기혼 여성에 해당될 정도로 기혼 여성 비율이 높았다. 보다 중공업류에 해당될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았으나, 그만큼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절실했으나 실제로는 전무한 현실이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 요구는 미약하나마 필요한 요구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청계, 1986, 72-101쪽.
21) 「平壤 고무爭議眞相 二」, 『동아일보』, 1930.9.5.
22) 「拘禁된 世昌罷業女工 七名同盟絶食斷行」, 『동아일보』, 1931.7.31.

3.2. 모성을 보호하고 계몽할 것: 선교 기구의 모성 보호 운동

모성 보호 운동의 다른 한 축은 모성 보호 시설에 대한 촉구였으며, 산모를 위한 요구 중 중요한 축이었다. 이 때 러시아의 모성 보호 제도화 소식은 모성과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어머니 되는 녀성들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당당히 사회에 향하야 요구하여야 하게 되엿슴니다 이와 가치 생각하면 모성 보호운동은 우리의 급무중의 하나이라고 볼 수가 잇슴니다"[23] 모성과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자각은 이를 위한 각종 모성 보호 제도와 시설의 촉구로 이어졌다. 특히 조선인 산모의 사망률 총 사망자수 1천 대 19라는 비율이 일본 산모 사망률 총 사망자수 1천 대 10이란 비율보다 훨씬 고율에 가깝다는 것은 산모에 대한 보호가 극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하였다.[24]

그러나 시설 설치 등 모성 보호를 실제 외견상 제일 활발하게 실천한 곳은 기독교 선교기구였다. 서구 기독교 여성계의 보수적, 사회개혁적 시각을 견지한 기독교 선교기구는 공중보건 계몽사업과 더불어 유아건강관리,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법, 보건강의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모성 보건 사업을 제일 서둘러 추진한 곳은 미국북감리회 해외여성선교회(WFMS)였다. 로젠버거(E.T.Rosenberger, 魚信福) 간호사와 산파 한신광이 주도하여 1924년 태화여자관에 태화진찰소 사회봉사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운영된 모자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25] 그 외 감리교 선교회가 운영한 모성 보호 사업으로는 공주 지역 모성 보호 사업이 있었다. 본 사업은 보딩(M.P.Bording) 간호사가 1926년 유아진료와 어머니 모임을 꾸리면서 시작하였으며, 1930년 무렵에는 조선과 일본인 아동을 위한 주간 진료소, 산전 진료소, 우유 공급소, 산과 왕진 진료 및

23) 「露西亞와딴나라 母性保護의實跡」, 『동아일보』, 1927.11.8.
24) 「만히나라! 잘기르자! 年出生六十二萬名」, 『동아일보』, 1939.1.7.
25) Methodist Episcopal Churc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Press of the Methodist Pub. House, 1926, p.69 ; 「幼兒를 爲해생긴 泰和舘의 診察所」, 『동아일보』, 1924.1.25.

교육, 탁아소 등으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어린이 보건사업의 핵심은 산모를 위한 건강 진단, 우유 무상 공급 등이었다.

1929년에는 로젠버거의 주창으로 세브란스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태화진찰소 3개가 연합하여 초교파적 사업체인 "서울연합소아건강구제회(The Seoul Child Welfare Union)"을 구성하였는데, 1932년 보건 상담 약 5천명, 가정 방문 4천회에 이를 정도로 사립기관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듯 사업이 확장된 데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모성 및 아동 보건에 대한 높은 수요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 진영을 중심으로 실천한 조선의 모성 보호 운동은 애초 러시아로부터 소개되었던 사회주의적, 여성인권 중심적인 모성 보호 비전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주로는 기독교적 계몽과 선교의 차원이었다. 권리로서의 모성은 지식과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모성이 동아일보에서 태화진찰소 사업에 고취되어 "적당한 운동의 부족, 노역과 휴식의 관계에 대한 무지, 불규칙 무절제한 음식과 일상생활, 위생학적 지식의 결핍과 의료기관의 불완전, 이런 것이 모도 민족적 불건강의 원인이니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동안 조선인의 보건은 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며 교육자와 의사들의 활발한 교육 진료 활동을 촉구하였다.[26] 모성보건 운동과 서비스는 여성에 대한 계몽, 위생학적 지식의 전달과 돌봄의 제공으로 국한되었다.

기독교 계통의 모성보건운동은 비록 계몽의 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조선의 부족한 모성보건 서비스에 대한 자각을 가져왔고 평등한 모성 보호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1927년 경남 산청군에서 부모 모두 바깥일을 하는 가운데 6살 딸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익명의 필자는 사설에서는 이는 노동하는 가난한 가족의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어린 아동의 보호 사업은 빈곤층의 생존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조선의 부족한 시설'은 시설 확충의 긴요함을 보여주었다.[27] 일례로 조선의 조산원은 무료 조산원의 경우 5개소에 불과하고, 전 조선의 산파 수도 겨우 1천7

26) 「시급한 보건문제」, 『동아일보』, 1924.1.26.
27) 「아동보호사업필요」, 『동아일보』, 1927.11.18.

백72명에 불과하였다.[28] 이는 일본의 무료산원이 39개소이고 기타 부인보호기관도 23개소나 되는 실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29]

같은 칼럼에서 동아일보는 "조선은 민도도 낮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즉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은 무료 산원과 부인보호기관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인은 확실히 다산다사의 법칙을 따르고 잇으며 일본내지인은 그 반대로 소산소사의 법칙을 따르고 잇는 것을 알 수 잇다. 이것으로 보아도 조선여자는 보담 더 무거운 산아의 부담이 잇는 것을 알수잇는 것이다" 고 지적하였다. 즉, 현대 모성은 일본(제국)과 식민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며 조선의 모성이 처한 상황이 더 열악하므로 더 많은 기관과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러시아의 모성 보호 선례(先例)는 모성 보호 시설이 필요했던 식민지 조선에게 좋은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모성 보호 시설을 요구하는 논리는 사회주의적 이상으로서의 모성 보호 논리보다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모성을 구원하는 논리에 가까웠고, 선교 기구의 구국 계몽 운동과 유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위생 및 보건을 위한 모성 보호, 이를 위한 여성의 계몽 및 교육이 중시되는 논리에 가까웠다. 이 때 모성 보호의 필요성은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라기보다 국가의 미래 및 장래 수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비록 시설이 극히 빈곤한 식민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기독교적 모성 보호 운동 또한 식민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으나 한계도 분명하였다.

4. 모성 보호 담론 변모의 두 가지 사례 - 서구 모성 보호 담론의 소개와 직업 여성 건강 담론

28) 「만히나라! 잘기르자! 年出生六十二萬名」, 『동아일보』, 1939.1.7.
29) 「産婦及幼兒의 保護施設問題」, 『동아일보』, 1935.4.11.

식민지 조선에서 모성 보호 담론은 언론 매체 등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제도적 요구로서의 측면 이외에 담론적 측면에서 크게 눈에 띄는 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엘렌 케이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모성 보호 담론의 소개로서, 모성 보호의 비전이 '여성의 특질 발견'을 중시하는 여성 해방 담론으로 소개되었고, 여성의 국가 참여 비전 속에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 여성 건강 담론의 변화인데, 당대 직업 여성 건강 담론은 모성 보호를 위한 담론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 여성 건강 담론은 특히 유해한 직업에서 여성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장법 주장 등과 결합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대의 모성 보호를 둘러싼 의학적 지식이 개인적 지식 수용 차원을 넘어서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1. 모성 보호와 여성 노동을 둘러싼 논쟁-서구 담론의 수입

러시아 혁명 후 수립된 모성 보호 제도는 식민지 여성운동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으나 모성 보호 담론은 러시아와 서구 사회주의의 그것이 그대로 이식된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모성 보호 담론은 주로 여성의 노동 참여와 모성 담론 속에서 애매모호한 형태로 소개, 논의되었다. 즉, 여성의 노동 참여가 권장할 만한지 아닌지를 논하면서 보완적으로 모성 보호의 필요성이 추가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필수적이라면 모성 보호는 당연한 권리로 주장되어야 할 것이었다. 반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부정하면서 모성의 신성함과 권리로서의 중요성을 국가에 주장할 수도 있었다. 모성 보호 담론의 양가성은 서구의 모성 관련 논자들을 소개, 도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의 동등한 직업 참여를 주장한 서구의 논자들도 일부 소개되었다. 우선 '부인과 경제(Women and Economics)'를 저술한 샤롯트 빠긴스 길만(Charlotte Perkins Gilman)의 여성의 직업적 자유를 중시한 주장, 즉 부인은 경제적 독립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성적 관계를 개혁해야 하고 경

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부인도 남성과 같이 직업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루어졌다.[30] 그러나 모성 보호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된 논자는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였다. 엘렌 케이는 '인형의 집' 저자 헨리 입센의 여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소개되었는데[31],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중시했던 헨리 입센의 입장과 달리 모성의 신성함을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특질로 보았다. 모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32]

"소아가 칠세되기까지의 기간은 그 소아의 전생애를 결정할 시기인즉 그 교육자는 그 소아의 성질을 매일 관찰할 기회를 有하야 그 소아의 특질을 조장하고 그 특질 안인 부분을 제어하면서 부단히 그 아동에게 감화를 與하는 者라야 할 것이다 그려고 이러한 일은 가정외사무에 종사하는 모로는 도저히 능치 못할 일이다(…) 현명한 모라 함은 아동 그에게는 무의식적이라도 피등에 優한 滋養을 與하며 피등의 성장에 대하야 최고의 상태를 창조하는 人을 謂함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그녀 스사로의 침착한 성질과 기지에 의하야 성장하는 영혼에 대한 露가 되고 太陽의 煇가 되는 人을 謂함이다 그것은 그 人의 慾望이 법칙이 되고 그 미소가 보주가 되고 그 부동의가 형벌이 되고 그 포함이 은혜가 되는 그와 갓흔 인을 謂함이다"[33]

"萬若 새로운 社會가 『베토펜』과 『와크나』될 사람을 機關手를 맨들어

30) 「婦人問題의 槪觀 (十二)」, 『동아일보』, 1922.6.26.
31) 「婦人問題의 槪觀 (一)」, 『동아일보』, 1922.6.13.
32) 엘렌 케이가 과연 사회주의적 비전을 가진 모성보호주의자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엘렌 케이는 스웨덴 사회민주당 지도자와 긴밀하게 교류하는 사회민주당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며,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스웨덴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믿었다. Louise Sofia Hamilton Nyström, *Ellen Key: Her Life and Her Work,* New York: GP Putnam's Sons, 1913, pp.124-125 참조.
33) 「婦人問題의 槪觀 (十三)」. 『동아일보』, 1922.6.27.

놋는다면 이는 참말 슯허 하지 아니할 수 업는 일이다. 그와 마챤가지로 萬若 새로운 社會가 女子로 하야곰 靈魂의 敎育者인 어머니 되게 하는 代身에 남자와 가티 戶外에서 일하는 勞動者를 맨든다 하면 이야말로 大端한 精力의 誤用이로다."[34]

엘렌 케이는 모성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성에게 국가 연금을 주는 것을 긍정하였으나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는 대신 노동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엘렌 케이의 모성 보호 담론은 여성의 동등한 노동 참여 관점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으나 국내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의 창립 회원이었던 박원희는 엘렌 케이의 사상을 중요한 여성해방담론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감옥 수감 중에 저작을 번역하기도 하였다.[35] 192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뜻을 두고 경제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떠난 최영숙 또한 엘렌 케이의 사상을 접하고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에 스웨덴에 유학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희가 엘렌 케이 사상을 접한 것은 1920년대 초 일본 유학 시절이었는데, 당시 일본 여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모성보호논쟁"과 함께 엘렌 케이 사상 또한 주요하게 논해지고 있었다.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모성 보호에 대한 이해 또한 일본의 모성보호논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성보호논쟁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고용시장으로 여성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방법론과 모성 보호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여권론자들의 논쟁을 일컫는다. 논쟁은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이루어졌다. 논쟁의 첫 시작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가 열었는데, 국가에 의해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의뢰주의(依賴主

34)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개벽』 제9호, 1921.3.1.

35) 새밝, 「아하. 마즈막 얼골, 除夜의 슬픈 종소리 드르면서」, 『삼천리』 제3권 제12호, 1931년 12월 1일; 조선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김사국의 아내이자 여성 사회주의자로서 족적을 남겼던 박원희의 생애에 관해서는 안미경,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167-212쪽 참조.

義)'라고 비난하였으며, 모성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의 능력이 없는 노약자나 폐인이 양로원 신세를 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반면, 히라츠가 라이쵸우(平塚らいてう)는 모성은 생명의 원천이며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부인의 행복을 위해 제일 필요하다; 자녀를 통해서 전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36] 이 중 히라츠가는 자신의 사상적 근간을 엘렌 케이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에 기여할 수 있었던 역할 속에 여성(모성)의 역할을 접목시키고자 하였다.[37]

엘렌 케이의 모성 보호 이론은 본래 자본주의 하 여성의 직업적 자유를 허상으로 보고 모성을 중심으로 둔 사회적 구조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38] 그러나 일본과 식민지 조선으로 소개되면서 엘렌 케이의 모성 논의는 여성 역할의 긍정적 자각,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역할론 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동아시아 여성이 건설해야 할 국가에 대한 비전과 결합하였고, 모성에 대한 이해 또한 국가의 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39] 엘렌 케이 사상에 대한 열광과 수용은 국가에게 여성이 요구해야

---

36) 櫻井絹江, 『母性保護運動史』. 東京: ドメス出版, 1991, 48-49쪽.

37) 히라츠가는 여성의 노동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역할을 기대하였다. 히라츠가가 모성보호논쟁에서 취했던 입장에 관해서는 오고시 아이코,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전성곤 옮김, 소명, 2009, 105-145쪽 참조; 히라츠가의 '국가에 의한 모성 보호'에 대한 기대가 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를 통해 전개했던 의회 청원운동의 실패를 통해 접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은경, 「모성, 참정권, 전쟁 그리고 국가-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79-113쪽 참조; 엘렌 케이의 사상 중 모성주의에 관한 내용을 히라츠가가 어떻게 선별, 수용했는지에 관해서는 히로세 레이코, 「일본의 '신여성'과 서양여성해방사상」, 『여성과 역사』 5, 한국여성사학회, 2006, 95-117쪽 참조. 히로세에 따르면 케이는 모성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년간의 의무기간을 마련하여 여성을 징집, 교육시켜야 한다는 '모성교육론'을 주장한 반면 히라츠카는 이에 대해 별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우선 국가가 모성을 도와주고 그 다음 남편이 도와주어야 한 케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육아에 대한 보조는 '남편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38) 엘렌 케이의 모성 이론과 새로운 사회적 비전에 관해서는 Cheri Register, "Motherhood at center: Ellen Key's social vis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5, No. 6, Pergamon, 1982 참조.

할 권리로서의 모성 보호가 여성의 국가 참여 의무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2. 직업 여성의 건강 담론–개인적으로 감수해야 할 건강과 직업 위해

모성 보호는 노동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강 담론이 모성이 건강할 권리, 모성의 보호 필요성을 촉구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의 직업 여성과 모성 건강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초 직업 부인 건강 담론은 직업 여성에 대한 옹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바라보았던 1920년대에는 '부인의 직업은 건강에 무해, 도리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직업부인 중에 병자가 다소간 만히 생기는 것은 사실이 있을지라도(..) " 직업이 위생에 해로운 것이어서 그만두는 것은 너무 신경이 과민한 데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문제가 된 경우는 선천적인 체질이 약하게 타고난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가정부인들이 더 허약한 이가 많으며, 유산 통계를 보더라도 직업부인이 더 적다고 주장하였다. 자궁후굴 등 자궁 관련 질병은 병약한 여인들이 오랫동안 산후 조리를 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었고, 건강한 신여성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40]

건강을 진보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직업부인을 건강한 여성으로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신시대의 여성은 일반으로 '지능과 건강이 종래로 가정에 갇혀 있던 부인에 비하야 사뭇 우월하게 되었으며' '지능

39) 요사노 아키코, 히라츠가 라이초, 그리고 이후 모성보호논쟁에 참여했던 여성 지식인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는 전쟁 발발 이후 '여성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일본 여성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였다.

40) 「직업부인의 건강」, 『조선일보』, 1927.6.18.

이 발달하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면 모성으로서도 따라서 우월하여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모성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가 건강해지면 분만도 용이할 수 있었다.[41] 다만 직업에 따라서 공장과 같이 장시간 노동 설비, 비위생적인 상태 등으로 인해 모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직업 여성의 건강론도 잠깐, 직업 여성에게 직장이 유해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논해졌다. 경성제대 산부인과의 윤태권(尹泰權)은 직업부인들의 건강 상 위해를 거론하며 집무장의 독물 등이 직접 생식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월경곤란증이나 월경과다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강제로 자세를 취하게 되어 골반이 협착될 수 있다는 점, 독물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출생아가 허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42] 직업 부인에게 주로 우려되었던 질병은 월경 이상, 자궁후굴, 유산 등이었다. 자궁후굴은 선천적으로 병약한 여인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공장에서 소변을 오래 참거나 변비가 오래 계속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이었다.[43] 또한 공장에서 너무 서 있고 몸을 차게 가짐으로써 생식기에 고장이 날 수 있다고 보았다.[44] 공장과 백화점 사무실에 일하는 여성들은 기관지늑막염, 폐렴 등 호흡기병에 걸리기 쉽고 심하게는 현대 문명의 질환, 빈혈이나 객혈도 이환될 수 있었다.[45] 또한 운동부족으로 소화기병도 생길 수 있었다.[46]

---

41) 유곡생. 「職業과 母性」, 『동아일보』, 1927.12.24.

42) 「부인. 부인위생. 일반직업 부인에게는 여러가지 부인병이 많아 좌업과 집무장에 유독물 중독으로 제대산부인과 尹泰權 (5)」 『조선일보』, 1931.4.7; 직업갖인 여자는 생식기병이 만허」, 『동아일보』, 1936.1.4.

43) 「직업 부인에 많은 자궁후굴 소변을 오래 참으면 탈난다 산후부 절제도 원인」, 『조선일보』, 1936.8.8.

44) 「[가정] 직업부인들은 몸을 덥게 할 일. 직공, 버스걸, 엘리베이터걸 임신에 미치는 영향 크다」, 『조선일보』, 1938.6.19.

45) 「하기쉬운 가슴운동 직업부인에게 좋다!」 『조선일보』, 1940.5.25; 직업부인에 많은 빈혈과 결핵, 『조선일보』, 1940.6.25.

이렇듯 직업 부인 건강 담론이 크게 다루어진 데에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었다. 1935년 일본 내무성 사회국의 연구 결과 취직 전보다 취직 후가 복통에 따른 장해가 많고, 일반 부인의 불임증보다 공장 여공의 불임증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장 여성들의 건강 상의 위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이었다.[47] 이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궁 후굴과 불임증이 지목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주요하게 사설로 다루면서 조선의 여공 문제가 조선의 노동 문제에 더욱 중대한 몫이 될 것이며, '공장법과 보호시설이 없는 조선에서는 그 이상의 참담한 결과를 상상할 수 있지 아니한가'고 주장하였다.[48]

특이한 점은 직업 여성의 건강 담론은 건강론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유해론으로 바뀌었으나 직업여성 불가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로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강조되었다. 즉 결혼에 대한 관심을 미리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익힌 운동을 되풀이하는 것, 점심시간에 맑은 공기를 흡수하는 것,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 잔디 위를 걷는 것 등이 권장되었다.[49] 또는 겨울에 몸을 차갑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온과 양치질을 할 것을 권하였고, 폐병이나 기관지늑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수 하기 쉬운 가슴운동을 소개하였다.[50]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식사량이 어느 정도여야 할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임신에 맞춰서 주의하여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마무리지었다.[51]

이러한 담론은 주로 전쟁 시기 여성의 직업 전선 참여와 모성 건강을

46) 「직업 부인은 영양과 운동이 부족 일광욕에 힘쓰며 음식에 주의하라」, 『조선일보』, 1931.6.7.
47) 「어머니의 天職을 뺏는 現代悲劇의 職場」, 『동아일보』, 1935.4.19.
48) 「勤勞女性과 勞働立法」, 『동아일보』, 1935.4.20.
49) 「가정. 어째서? 직업 부인이 되면 병이 자주날까요 결혼은 건강에 자신 있을때」, 『조선일보』, 1940.6.12.
50) 「직업부인의 겨을위생」, 『동아일보』, 1938.12.24.; 「하기쉬운 가슴운동 직업부인에게 좋다!」, 『조선일보』, 1940.5.25.
51) 「직업부인의 임신과 영양 (上(상)」, 『동아일보』, 1940.6.5.

함께 독려, 증진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호의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그보다 새로운 의학 지식의 생산과 함께 전쟁 시기 직업에 잘 참여해야 할 규율, 건강할 신체를 유지할 규율이 함께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모성 보호 운동의 성취로부터 후퇴한 것에 가까웠다. 당시 일본에서도 모성 보호의 후퇴는 뚜렷하였는데, 「공장취업시간 제한령 폐지의 건」이 1943년 제정되고 부인의 공장 보호 규정도 후생대신의 지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게 되는 등 여성의 강제 노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에서 권리로서의 모성 보호 논의는 사장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러시아 혁명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모성 보호 또한 그 중 하나였다. 본 논고는 러시아 혁명과 함께 제기된 담론과 제도적 요구 중 모성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해방 및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성 보호는 당대의 중요한 사회주의적 요구였으며, 러시아 혁명은 이를 현실화시킨 모델이 되었다. 일본과 조선 등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여성운동 또한 서구의 모성 보호 논의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모델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사회주의 단체나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에서 모성 보호가 포함된 것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의 모성 보호 요구가 러시아 정부와 서구 사회주의적 비전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정적인 성역할,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원, 모성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기독교적 모성 보호 운동 또한 중요한 모성 보호의 흐름이었다. 서구에서 모성 보호의 사회주의적 비전이 도입됨에 있어 기독교적 모성 보호 운동과 경계를 분명히 그은 것도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소개된 모성 보호 논자였던

엘렌 케이의 사회적 모성 논의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 수입되면서 모성의 역할 자각, 여성의 역할 자각과 계몽, 국가에 대한 요구로 단순화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모성 보호 논의가 추상적인 여성 해방의 다양한 논의들 속에 변주되면서 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30년대 이후 다양한 직업 여성 건강 담론 속에서 모성 보호 및 여성의 권리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모성 보호에 대한 조선의 (여성) 담론의 한계를 드러낸다.

참고문헌

1. 자료

『개벽』

『동아일보』

『삼천리』

『신여성』

『조선일보』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Press of the Methodist Pub. House, 1926.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1919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48).

朝鮮總督府, 『民籍國籍及職業(小分類)別本業人口』, 京城: 朝鮮總督府, 1935.

2. 단행본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청계, 1986, 72-101쪽.

오고시 아이코,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전성곤 역, 소명, 2009,

105-145쪽.

櫻井絹江,『母性保護運動史』. 東京: ドメス出版, 1991.

Alice Withrow Field,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Soviet Russia,* London: Gollancz, 1932, Chapter 2.

Bonnie G Smith. *The Oxford Encyclopedia of Women in Worl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348.

Henry E Sigerist and Julia Older, *Medicine and Health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Citadel Press, 1947, p.218.

Karl Polanyi, *For a New West: Essays, 1919-1958,* John Wiley & Sons, Cambridge: Polity, 2014.

Louise Sofia Hamilton Nyström, *Ellen Key: Her Life and Her Work,* New York: GP Putnam's Sons, 1913, pp.124-125.

Pat Thane and Gisela Bock,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 - 1950s,* London: Routledge, 2016, pp.28-30.

Seth Koven and Sonya Michel, "Introdution", Seth Koven and Sonya Michel eds., *Mothers of a New World: Maternalist Politics and the Origins of Welfare States,* London: Routledge, 2013, p.2, pp.1076-1108.

논문

강이수,「근대 여성의 일과 직업관-일제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170-206쪽.

김혜경,「식민지 시기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어린이, 모성의 형성을 중심으로.」,『사회와역사』58, 한국사회사학회, 2000, 71-105쪽.

안미경,「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한국민족운동사연구』7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167-212쪽.

안태윤,「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한국여성학』19-3, 한국여

성학회, 2003, 75-116쪽.
이은경, 「모성, 참정권, 전쟁 그리고 국가-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79-113쪽.
히로세 레이코, 「일본의 '신여성'과 서양여성해방사상」, 『여성과역사』 5, 한국여성사학회, 2006, 95-117쪽.
Cheri Register, "Motherhood at center: Ellen key's social vis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5, No. 6, Pergamon, 1982, pp.599-610.

Abstract

Russian Revolution and maternity protection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Choi, Eun-Kyung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that the 1919 Russian Revolution had on women's history, other than the sexual revolution, would be the maternal protection system. The protective system for mothers and infants, established in revolutionary Russia, was introduced with a socialist vision, which became an essential challenge among women socialists in colonial Korea. This paper focuses on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guments and discourses surrounding maternity protection. The socialist vision of maternity protection initiated in revolutionary Russia involved health protections from hazards in the workplace, and it became the main argument among women socialists and workers in colonial Korea. However, the maternity protection arguments in colonial Korea reflected neither the vis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from revolutionary Russia nor western socialism itself. As in the case of "The Seoul Child Welfare Union," the conservative maternity protection movement stemmed from Christianity, while the advocation for fixed gender roles, the salvation of women and infants, and education for maternity were other influential ones. In addition, the arguments regarding social motherhood from Ellen Key, a prominent figure in maternalism, were simplified as self-awareness of the roles of mother and woman and as claims to

the state. It shows that the socialist argument for maternity protection was variated, and it became superficial in the context of arguments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The arguments for the necessity of maternity protections and the rights of female workers disappeared in the discourses, replaced by arguments for protecting the health of female workers in the 1930s. This shows the limits of the discourse regarding maternal protections in colonial Korea.

Key words : Imaternity protection, Russian revolution, women socialists, health of female workers, Ellen Key, maternity protection movement from Christianity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26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